

“균형감이 철학”... 와인의 ‘골디락스’ 꿈꾼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美 캘리포니아 소노마 ‘센시스’

가끔씩, 아니 매번 아쉽다. 품질이 좋으면 비싸고, 예쁘게 싸게 샀더니 결국 싼 티가 난다.

소비자의 고민은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 좋는데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눈높이가 아주 높아진 상태에서 볼 때도 제값만 하면 좋을 터.

와인이라고 다를 리 없다. 저마다의 개성은 눈여겨볼 만 하지만 균형감을 갖춘 와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자라 과실미가 폭발한다 싶으면 과하기만 하고, 서늘한 곳에서 산미를 키웠더니 뭔가 알맹이가 빠진 느낌



크리스토퍼 스트리어터 센시스 창업자. /나라셀라

이다. 경제용어로 말하면 ‘골디락스’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태. 50년대, 60년대 생은 꿈도 안꿨다. 70년대 생도 지역, 혹은 테루아에 따른 차이로만 치부해버렸다. 80년대 생이라서 다른걸까. 맥스(Max), 크리스(Chris), 마일즈(Myles)까지 1988년생 세 명, 본인

들의 첫 글자를 딴 와인을 만든 이들은 골디락스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골디락스를 해내는 것이야말로 명품의 반열에 오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크리스토퍼 스트리어터 센시스 창업자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 리버벨리에 담긴 테루아의 저력을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리

미업 샤도네이와 피노누아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정확한 시점이 언제일 까를 항상 고민하며 와인 뿐 아니라 모든 일은 균형감을 맞추는 것이 센시스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센시스가 내놓은 와인을 맛 본 이들이 하나같이 말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면 과연 미국의 소노마에서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프랑스 부르고뉴, 그것도 몽라쉴레라고 답했을 거라고. 캘리포니아의 빛나는 햇살이 짜릿짜릿한 산미를 만났다. 캘리포니아식 골디락스인 셈인데 목표를 너무 빨리 달성했다. 센시스의 화이트 와인이 ‘소노마의 몽라쉴레’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다. “가능한 옷을 덜 입히려고 노력했다.” 크리스토퍼의 말이다. 포도밭, 포도 본연의 향과 맛에 집중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햇살 아래서 밸런스 포인트를 찾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의 샤도네이를 새롭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센시스 델 디아블로 샤도네이’ 2021년 빈티지는 센시스 포도밭 가운데서도 내륙에 위치해 따뜻한 기온을 유지했지만 과실미와 산도를 높게 유지했다. ‘센시스 찰스 하인츠 샤도네이’ 2021년 빈티지는 화이트 와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은 만큼 힘이 넘쳤다. 둘 다 앞으로 가 더 기대되는 와인이다. ‘센시스 엠씨엠 88 피노누아’는 3명의 창립자들이 생년과 이름 앞글자를 따서 네이밍했다. 어디가 산지인가 싶을만큼 초콜릿 민트향과 함께 야생고기향이 진하고, 구조감이 도드라진다. ‘센시스 데이 윈 피노누아’는 3명의 창립자가 센시스를 세우고 말 그대로 첫째날에 내놓은 와인이다. 코에서는 라즈베리 파이, 빨간 장미의 화려한 향과 라벤더에 숲의 바닥에서 날 법한 나무의 향이 집약적이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이창동 감독의 시선

얇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진도가 안 나가는 것들이 있다. 최근에 읽은 ‘버닝 각본집’이 그랬다.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일까. 등장 인물이 많은 것도 아니다. 주요 인물은 벤, 해미, 종수 세 명이 전부다. 인셉션처럼 복잡한 플롯도 아닌데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시나리오를 2~3번씩 읽고, 책의 앞뒤에 붙은 감독의 말과 인터뷰를 전부 정독해도 버닝이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다.

각본집에 실린 인터뷰에 따르면, 이창동 감독은 벤이라는 캐릭터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이야기한다. 버닝 촬영 막바지에 감독이 배우에게 지나가는 말로 ‘벤이 연쇄 살인범이었을 것 같냐고 묻자 스티븐 연(벤역)은 “대답하지 않래요. 나만 알고 있겠”이라며 웃었다고.

재밌는 건 버닝을 본 사람들에게 물어도 전부 다른 답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옆에 얼굴 정도는 벤이 해미를 죽여서 종수가 그를 살해한 거라고 했다. 누구는 벤이 해미를 죽인 게 아니고 종수가 그녀를 살해한 것이고, 자신의 죄를 벤에게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미도, 벤도 전부 소설가 지망생인 종수가 상상 속에서 그려낸 인물이라는 대답도 나왔다.

‘영화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창동 감독의 작가론, 작품론, 인터뷰가 수록된 책이다. 인터뷰어로 참여한 김혜리 영화평론가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에는 새로운 ‘나’가 되길 꿈꾸는 주인공들의 바람이 상상과 다른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감독은 “원하지 않



영화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전주국제영화제 기획/아름

고 예상치 못했던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이다”며 “달리 말하면 예측 못 한 사태가 닥쳤을 때 인물이 어떻게 그 속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내느냐가 내 관심사”라고 이야기한다.

‘버닝에서 어디까지가 종수의 소설이고 어디까지가 객관적 사실인지 모호하다. 창작자로서 상대적으로 무책임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는 안 했나’라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감독은 “버닝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구조가 가진 불투명함 자체를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려는 이야기”라며 “어디까지가 종수의 소설이나는 부분은 지엽적이다”고 선을 긋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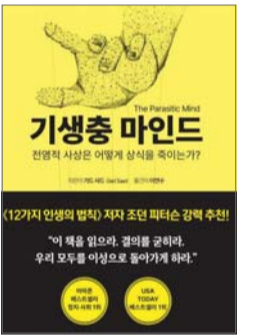
그제사 책의 머리말에서 영화평론가 장 프랑수아 로제가 “이창동 영화가 암시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오직 예외적으로 참여한 현실 인식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분투하는 시네아스트들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있는 것이다”고 한 이유를 알게 됐다. 240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

기생충 마인드

책은 전 세계 학계가 다양성과 포용성, 공정이라는 구호에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사람들의 지성을 마비시키는 사상을 기생충, 전염병에 빗댄다. 전파력이 강하고 받아들이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저자는 과학을 배격하거나 부정하는 새로운 ‘전염병적’ 사상이 인간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며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불온한 사상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자 말한다. 자유 사회에서 지적 태만이 시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하는데, 진실을 왜곡해 흑세무민하는 어용 지식인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동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336쪽. 2만원.

가드 사드 지음/이연수 옮김/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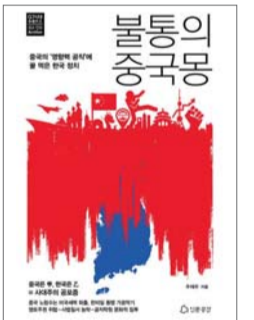


불통의 중국몽

중국 공산당은 세계 패권을 위한 중국몽(中國夢)을 나라별로 특색있게 전개하고 있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책에 따르면, 중국의 꿈은 한국의 영토 주권을 위협해 무력화하고 정치외교 심리전을 통해 중국 포비아(phobia)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환상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포심을 확산하

는 것으로 요약된다. 저자는 “한국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을의 지위’를 벗어났음에도 사대주의의 식에 젖어 저자세 외교로 중국에 대응해 왔다. 중국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 ‘영향력 공작’을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현 사태를 타개할 ‘극중팔계(克中八計)’를 제시한다. 288쪽. 3만원.

주재우 지음/인문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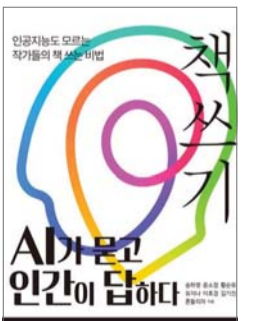


책쓰기 AI가 묻고 인간이 답하다

‘책쓰기 AI가 묻고 인간이 답하다’는 인공지능도 모르는 작가들의 출간 경험을 공유한 책이다. 피아니스트, 한의사, 시인, 방송인, 초등교사, HR 전문가, 출판사 대표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20년 이상 공력을 들인 저자들이 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경험을 나누자는 뜻을 모아 세상에 나오게 됐다.

흥미로운 건 챗GPT에게 각자의 경험과 의도를 알려 주고 묻고 싶은 질문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엔 책 쓰는 법을 알려주는 실용서 같지만, 책은 ‘당신은 왜 책을 써야 하는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진다. AI는 묻는다. “인간은 왜 책을 쓰려고 하나?” 256쪽. 1만7000원

송하영 외 6명 지음/흔들의자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日닛케이, 이익 확정 매도에 4만선 밀 급락... 엔고도 부담
▲ 中양이 “北 안보 우려 해소해야”... 韓 “北비핵화 중의의 부합” /사진 뉴스스

▲ “이젠 ‘한국 문학’이 뜬다”... 韓가디언 K-컬처 성공 주목
▲ EU “北 핵실험 재개 정황 우려... 북 러 군사협력 규탄”



▲ 우크라이나 정보국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 절반은 불량”
▲ 중국 1~2월 수출 7.1% ↑... “자동차·반도체 견인” /사진 뉴스스